투어 번호
LK4Z64MC9J

# 자연, 언덕과 야생동물 (6일)

6일 · 5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 이 체험 소개

이 6일간의 투어는 스리랑카의 문화 심장부, 중부 고지대, 남부 야생동물 및 해안 지역을 하나의 연속 경로로 연결하며, 운전기사 겸 가이드가 있는 전용 차량으로 여행합니다. 담불라 근처에서 코끼리 만남과 캔디의 성스러운 치아 사원으로 시작하여,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지역으로 올라가고, 엘라의 언덕을 통해 야라로 내려가며, 야라 사파리와 역사 깊은 갈레 요새 마을을 거쳐 콜롬보에 도착합니다.

여행객들은 야생동물, 문화, 풍경 및 가벼운 산책의 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핀나왈라의 코끼리, 캔디 문화 공연, 풍경이 아름다운 고지 기차 여행, 운영 중인 차 공장, 호튼 평원의 초원과 폭포, 엘라의 나인 아치 브릿지와 리틀 아담 피크, 야라 국립공원의 표범 서식지 사파리, 갈레 요새의 네덜란드식 거리.

이 투어는 전체 일정에 운전기사 겸 가이드와 함께 운영되므로,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구간과 남부 해안까지의 여행은 여행객이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진행됩니다.




## 일별 여행 일정

## Day 1 담불라 → 캔디 (1~2일차)

이틀 동안 담불라 인근에서 코끼리를 만나고, 캔디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을 방문하며, 저녁에는 전통 공연을 감상합니다.



### 피나왈라 코끼리 고아원

피나왈라는 자연 서식지를 잃거나 떠나온 어린 코끼리들의 보금자리로, 약 70마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육 코끼리 무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 강 목욕을 포함해 가까이에서 코끼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 불치사(불치사원)

캔디에 위치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칠해진 통로와 홀, 조각된 기둥과 황금빛 불상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A.Savin · FAL



### 전통 공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캔디 전통 공연에서는 불의 춤, 칼춤, 북소리에 맞춘 캔디 전통 무용 등 스리랑카의 다양한 전통 예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 Day 3 누와라엘리야 (3~4일차)

누와라엘리야와 그 주변을 둘러보는 이틀 동안, 경치 좋은 열차 여행, 차 공장 견학, 시내 탐방, 그리고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트레킹을 경험합니다.



### 경치 좋은 열차 여행

캔디에서 누와라엘리야까지 이어지는 열차 여행은 고산지대의 전원 풍경을 지나며, 안개 낀 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차 농장과 마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hamal N · CC BY-SA 3.0

### 차 공장 견학

가이드와 함께하는 견학에서는 밭에서 찻잎을 따는 모습부터 발효, 유념, 건조, 절단, 체질, 등급 분류에 이르는 실론티 제조 과정을 살펴봅니다. 견학은 티 테이스팅과 실론티가 왜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 아름다운 도시 탐방

누와라엘리야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인들이 즐겨 찾던 최고급 고산 휴양지로, 당시 지어진 코티지와 빌라, 저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거리를 거닐고,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에 들러보거나, 빅토리아 여왕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 근처에 위치한 호튼 플레인스는 많은 고유종이 서식하는 고산 초원과 운무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트레킹은 월드 엔드라 불리는 절벽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물보라를 감상하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 Day 5 누와라엘리야 → 엘라 → 얄라

얄라로 향하는 길은 엘라를 지나며, 이곳에서 짧은 하이킹을 통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본 뒤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 엘라의 경이로움 탐방

엘라를 지나는 이 트레킹 코스는 차밭과 암석 지대를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나인 아치 다리를 건넌 뒤 루프형 철로 설계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마무리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 Day 6 얄라 → 갈레 → 콜롬보

마지막 날에는 얄라에서의 아침 사파리와 오래된 요새 도시 갈레 방문을 함께 즐긴 뒤, 콜롬보로 이동하여 출국을 준비합니다.



###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얄라는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으로, 스리랑카 표범, 물소, 늘보곰, 코끼리 무리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공원은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및 무척추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 식민지 시대의 옛 도시 갈레

갈레는 한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 도시였으며, 이곳의 요새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방어 시설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자갈길을 따라 구시가지를 도보로 둘러보며,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 출국

아침 식사 후,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하는 것으로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Car,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